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탄절 메시지

성탄의 정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

가장 좋은 성탄 축하는 성탄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는 일입니다.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추한 세상에 강림하셨다면 온 세상이 그를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배척했고 푸대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래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생은 섬김으로 시종한 생애인 것입니다.

성탄의 근본정신은 대속(代贖)입니다. 봉사는 대속의 서곡이며, 대속은 봉사의 정점입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므로 그의 죄를 없이 하여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서 그의 죽음까지를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의 섬김이 대속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면 그는 인도주의자일뿐 구주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간한 봉사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정신까지 본받아야 합니다. 이웃의 죄를 대속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이웃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마치 나 자신의 책임인양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값을 갚으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탄정신은 희생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자의 비강(卑降)이며 격하이며 죽임이고, 그러기에 희생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에 가난을 핑계로 구제만 바라보거나, 상관이라는 이유로 선물만 기다리거나, 대목이라는 구실로 매상고만 올리려는 행위는 성탄정신에 위배됩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기보다 각자가 남을 섬기고 죄값을 지불해 주려는 대속과 희생을 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정신에 부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목사이종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종윤 목사 정년은퇴 감사예배

원로·공로목사 추대감사 및 고회 기념논문집 헌정식

이종윤 목사 정년은퇴 감사예배와 원로·공로 목사 추대감사 및 고회기념논문집헌정식이 12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드려진다. 이날 수요일 예배는 2부(7시)와 연합하여 드린다. 이종윤 목사의 성역 36년과 서울교회 사역 20년을 마감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에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기념사진촬영은 12월 29일 당일 오후 6시부터 하며 촬영순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와 고등부는 26일 주일 1부 예배 후에, 대학부, 청년 1부와 2부는 3부 예배 후에 사진촬영을 하게 되는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

복장은 남성은 흰색 셔츠에 진한 양복으로 하고 여성들은 한복 차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기념사진 촬영 시간표

부 서	일 시
당 회	6시
신행권사회	6시 5분
1, 2 권사회	6시 10분
1, 2 스테반회	6시 15분
여전도회	6시 20분
남선교회	6시 25분
예배말씀신분	6시 30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2부	26일 1부예배 26일 3부 예배

며 교회는 이날 참석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성탄축하 찬양예배 - 19일(주) 찬양예배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 성탄전야예배 - 24일(금) 오후 7시 - 본당
- 성탄절 새벽예배 - 25일(토) 새벽 5시 - 본당
- 성탄절 감사예배 - 25일(토) 1부:오전 9시 / 2부:오전 11시 - 본당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로 맞이하는 우리교회는

1. 찬양대 헌신예배/성탄감사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성탄절 감사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 "첫번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 성탄전야 행사 : 24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24일(금) 저녁 7시 본당에서 성탄전야행사를 가지며 교육1국 어린이들과 사랑부 학생들이 준비한 율동과 찬양으로 성탄을 축하한다.

3. 성탄절 행사 : 12월 25일(토)

- 새벽송 : 성탄절 새벽, 신청 가정에 방문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본당에서

· 성탄감사예배 : 1부 - 오전 9시, 본당
2부 - 오전 11시, 본당

성탄절 새벽은 주님이 나신 첫 성탄 때의 목자와 같이 우리교회 대학부, 청년부 젊은이들이 새벽송을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찬양으로 주님 나심을 전한다. 새벽 5시에는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리며 성탄절 오전 9시와 11시에 성탄감사예배를 드리며 감사헌금도 드린다. 성탄절 저녁에는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절 저녁 감사예배를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2011년 농어촌100교회·Vision2020·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 - 사무국

2011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접수받고 있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복회하는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여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한 구좌 10만원이다. (1/2구좌도 가능)

또한 Vision2020 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 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있다. Vision2020 운동 후원금은 장병 1인 세계경비(1구좌 5,000원 2구좌 10,000원)를 후원하는 것이다.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운동으로 한 구좌를 10만원으로 하며,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다. 어린이, 청소년은 1구좌를 5,000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토록 하고있다.

우리교회는 올 한 해 동안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 2억3천6백만원을 후원하였고, Vision2020 운동에 1억2천5백여만원, 선교비로 7억7천7백여만원을 후원하였다. 내년에 또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기도회

12월31일(금) 오후 7:30 - 10:00

순결서약식 - 1월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1년 순결서약식이 1월2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로 결혼전까지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며 참가신청은 각 담당 교회학교에서 취합하여 12월22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이며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5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성탄을 이웃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성도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구제헌금 전달

우리교회는 성탄을 맞이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었고 장애인 관련 기관(나사로의 집, 주몽재활원)에도 구제금을 전달하였다.

2011 교사총회

3부예배 후 - 본당 2층에서

오늘 3부예배 후 교사총회가 본당 2층에서 열린다. 각 교육부서 국장 및 부장, 차장, 교사는 반드시 참석해 주기 바란다

2010년 12월 성경통독자 시상

- <필사> 최용걸 집사(6교구), 박정섭 권사(12교구)
- <11독> 이균영 권사(5교구)
- <6독> 김경숙5 집사(13교구)
- <5독> 이동수 장로(12교구)
- <3독> 강영순 권사(6교구) 김은애 권사(9교구) 이민화 권사(12교구) 박순복 권사(13교구)
- <2독> 최학인 장로(5교구) 유을상 집사(6교구) 이영희 권사(6교구) 김관중 성도(9교구) 김흥두 권사(9교구) 윤정식 권사(12교구) 이성자 집사(15교구) 이상호 집사(16교구)
- <1독> 이해순 권사(3교구) 서영세 권사(6교구) 김광욱 집사(8교구) 박이선 권사(9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전용순 권사(9교구) 남정열 집사(12교구) 임인자 권사(12교구) 최유현 집사(12교구) 김수정12 집사(13교구) 김영옥 권사(13교구) 유슬기 집사(13교구) 유하영 집사(13교구) 윤현미 권사(13교구) 김경희 집사(15교구) 김명숙 성도(15교구) 김인숙 권사(15교구) 김인영 집사(15교구) 김희순 집사(15교구) 남현주 집사(15교구) 문남희 성도(15교구) 박종녀 집사(15교구) 양정실 권사(15교구) 이은미 집사(15교구) 이인보 권사(15교구) 이인숙 집사(15교구) 인계선 성도(15교구) 전미애 권사(15교구) 정부순 집사(15교구) 정춘혜 집사(15교구) 최종금 집사(15교구) 홍현미 성도(15교구) 김경복 성도(16교구) 한경신 성도(16교구)

성탄절 저녁 가족예배

성탄 저녁에 드리는 가족예배

성탄절 저녁 가족예배 순서

- 예배를 드리는 기도 가족 중 어른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 함께 부르는 찬송 123장(통일 123장) 다함께
- 교독문 다함께

- 인도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가 족: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인도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가 족: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 인도자: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가 족: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 인도자: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가 족: 이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입니다.
- 인도자: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 족: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 감사기도 다함께
- 찬 송 111장(통일 111장) 다함께
- 성 경 마가복음 10:45 가족이 다함께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성탄절 메시지 성탄의 신비 가족 중 어른
- 주기도 다함께

기 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구유보다 더 추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신비

인간이 신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 재래 종교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의 아들이 되어 오신 성탄은 인간의 사고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고 깊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은 재래 종교가 상상도 할 수 없
 었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데에 성탄이 지닌 또 하나의 신
 비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도덕이요, 인간이 신을
 받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은 우리의 상
 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고 묘묘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
 니다.

신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은 성탄이 지닌 더욱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사람의 종까지
 되셨고 거기다가 인간을 위한 제물(대속물)이 되신 것이야말로 몸 들
 바를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신비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구체화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성탄의 신비를 우리도 역사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높아지고 섬김
 받을 줄만 알았지 낮아지고 섬길 줄 모르면 성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
 습니다. 성탄절을 맞기는 하되 성탄의 문외한으로 남지 말고 성탄의 신
 비를 안고 생활 속에 나타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한상은 목사

지난 한 해 부족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사랑과 배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도 따뜻하게 마감하는 듯합니다.

특히 만나 뵈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

고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1,2교구의 성도님들, 부족한 교안이었지만 꼼꼼히 읽고 수정해 주셨던 장년부 교사님들, 마음만큼 함께 하지 못했음에도 항상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셨던 신혼가정부 교사님들과 회원들,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감당해 오신 비전2020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교회에서 가장 연세 높으신 아브라함 선교회와 사라전도회의 어르신들께서 베풀

어주신 사랑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신 모습들,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의 삶에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명철 목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주신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신 11, 12교구의 모든 일꾼들과 다락방 식구들, 식당관리부와 차량관리부의 모든 부원들, 초등부와 어린이 찬양예배의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살롬경로대학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모세선교회와 한나전도회의 모든 회원들, 순례자 편

집위원들과 20년사 편찬위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1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더욱 더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수길 목사

한동안 교역자실 책상머리에 이런 글귀를 붙여두었습니다. 默內雷(묵내뢰). '겉은 잡잡하나 속에선 뇌성벽력이 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마다 많은 말을 쏟아내는 이때에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처럼,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여기에 더하여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이요, 코람 데오(coram Deo)의 삶이겠지요. 지난 해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

지만 그 말대로 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는 더욱 말을 아끼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시 62:5).

장성남 목사

한 해 동안, 지역복음화와 영혼구원, 교회부흥을 위해 최선의 수고를 다하신 70인 전도대의 모든 대원께, 앞장서서 수고하신 부장단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혹서기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또한 엄동설한에 땀을 언 손으로 전도지를 쥌는 화요, 목요 축호전도팀원들의 그 발걸음과 손길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회 인근을 오가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서울 교회를 소개하는 수요일후, 수요일간, 토요일노방전도팀, 그리고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위해 화요, 수요일, 목요일 기도팀의 기도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 수많은 전도편지를 발송하는 문서전도팀, 그리고 전도교육을 위해 헌신한 전도폭발팀, 전도학교팀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62명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선

교현지를 마음에 품고 뜨거운 기도를 올렸던 18개 기도팀, 그리고 행정적 지원에 헌신을 다하신 선교위원회의 수많은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습세례반에서 수고하시는 스텝진들께, 예배 때마다, 행사 때마다 부족한 일손에도 일당백의 수고를 감내하며 눈부신 수고를 다하시는 멀티미디어 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노현상 목사

201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서 민족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서울교회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목회를 배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부족한

에도 불구하고 교구목사인 저를 향해 눈물 어린 기도와 뜨거운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13, 14교구 성도님들, 교회와 민족의 미래인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고등부 선생님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예배위원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헌금위원들,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영으로 신앙고백적인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수고와 땀으로 인해 서울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황 광 목사

은퇴를 앞둔 한국교회의 영적 거목이신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에게서 목회와 신학을 경험하고 사역한 것은 제게 평생의 가르침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늘 앞장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9,10교구 성도님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

별히, 교구찬양대회를 앞두고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며 찬양대회를 준비하여 사랑상, 믿음상을 받게 된 것도 멀리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9,10교구에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34분의 단기선교사님들이 6개월간 주중에 모여 기도하고 훈련받고 준비한 아프리카 말라위 단기선교가 많은 풍토병과 위험 가운데서도 사고 없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전폭적인 후원이 없었다고 하면 감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설렘과 기쁨으로 함께 했던 유치부 선생님들, 바울선교회와 마리아전도회,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찬양으로 섬겼던 글로리아 찬양단,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종민 목사

2010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빠르게 지나간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서울 교회에 적응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에게는 모든 것이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라는 대의가 더 크게 느껴졌고, 또한 더 실제적으로 부딪히며 배운 한 해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음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중을 위해 기도하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의 땀방울을 보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빛의 자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주님의 모든 은혜와, 주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기도와 사랑에 빛의 자로서 더욱 열심히 섬길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 구석구석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정훈 목사

2010년 한 해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던 위임목사님의 마지막 섬김을 통해 목사가 걸어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하게 자리잡은 15, 16교구 식구들에게 올해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성경공부를 통해 온전히 헌신한 서울 교회의 미래 기동인 청년 2부의 임원, 조장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서울 교회의 귀한 교육부서, 사랑부의 교사님들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선교에 헌신했던 베드로 선교회, 복희 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역대하 32:8)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새해, 서울 교회 성도님들 역시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유문건 목사

한 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인사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교구와 4교구, 대학부와 스테반회, 엘리야선교회, 에스더전도회에서 한 해 동

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며 충성된 일꾼의 모범을 보여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2010년도에도 그러했듯이, 2011년도 새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며 한 마음 되어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1년도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척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

박광일 목사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 탈북 형제, 자매님들을 미래 복한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디아스포라부에 베풀어주신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울러 탈북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최선의 사역을 다해주신 모든 교사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사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의 열매로 저희 디아스포라는 두 명의 서리집사와 함께 14교구에는 다락방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목사라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손잡아 이끌어주신 이종윤 위임목사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부교역자 분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해는 그 누구보다 저에게 있어서 뜻깊은 한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 날은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

지혜영 전도사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저에게는 넉넉한 은혜의 한해였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잔잔한 미소로 격려해주신 이종윤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과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신 서울교회의 어머니,

살롱권사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묶어 전국에서 오시는 주의 종들을 환하게 맞아주시는 제1, 2 권사님들..... 선지자의 상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노약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권사님들의 복된 발걸음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서울교회를 향해 마음을 정한 새얼굴들을 우선순위 일번지에 두고

기쁨으로 섬겨주신 새가족부 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조부를 섬기시는 분들, 이분들의 섬김 때문에 서울교회가 더 따뜻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서울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섬기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규현 목사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올 한 해도 에바다부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

리며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그 동안 사랑과 기도의 힘이 되어주신 위임목사님 그리고 서울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는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되고 분발하는 에바다부가 되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에바다부, 이종윤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에바다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에바다부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Rev. Joshua Cho

2011 looks to be an exciting year for our English Ministry. We thank God for all that He has done this past year. We said goodbye to some old friends, and God brought us new ones. We look to rebuild our ministry, and reach out to the foreigners and English speakers in the Daechi-dong area. Particularly, we are planning to launch a subsidiary organization called "Lean On Me: A

Christian Association of English Teachers and Professionals in Korea." This will be a bridge through which we will try to address the specific needs that foreigners face in Korea. Our first step will be to research the needs of the foreigners as well as pool together resources that members of our church can offer. Then, we will have Open House events when we can introduce our church and invite them to one of our Bible studies. We will also work this year to raise awareness about our ministry within the church. There are

many people who know that we have an English Ministry, but don't know any details beyond that. We will visit different departments, such as the elementary and high school groups, and introduce our ministry and provide flyers. Then, these students can go to their schools and hag-wons, and invite their English teachers to our ministry. We ask for your prayers, that the Lord will bless our efforts to expand our ministry. And may the Lord bles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so it may bear much fruit.

선교지 소식

Merry Christmas

조범연 · 김희정 선교사 (인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인도에서 존경하는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조범연 선교사는 인도 뿌네의 UBS 신학교에서 대강절을 맞이하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신학생들과 성탄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필요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도하고 있는 메갈라야 교회에서는 12월 4일에 전 교인들이 대강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선물교환을 겸한 감사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5일 주일 저녁 6시 30분에 뿌네의 많은 목회자들을 초대하여 UBS 예배실에서 대강절 성탄예배를 드리고 저녁식사를 나누었습니다. 18일에는 우스텐 초등학교 성탄행사에 학용품

을 기증하고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19일 주일에는 미조교회에서 선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25일 성탄절에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진리를 인도 땅에서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상식 선교사 (인도)



Merry Christmas!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신 우리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구원의 기쁜 성탄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서울교회 존경하는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온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진리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부흥 성장함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임목사님께서 진리

와 복음을 위해 섬김과 겸손으로 서울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서울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서울 강남노회에서 공로목사로 추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은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와 역사해 주심으로 서서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가나 할리 장로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개척과 유치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서울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 그리고 인도와 온 세계위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광종 · 이성일 선교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르따와이 지역에 해일 피해가 생기고 중부 자바에 있는 므라빠 화산이 계속해서 터지는 바람에 수 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도 화산에서 계속 연기를 뿜어 내어 비행기 운항이 중단 되었다가 다시 재개 될 정도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곳의 재난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 고치시고 어서 복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인들이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교 채플을 위한 강당 건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달부터 2012년 9월까지 2000석 규모의 강당을 위한 신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대금의 약 80% (착정현금)가 확보된 가운데 믿음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건축을 위해 헌금에 참여하고 있지만 채플이 들어설 때에 오르간이 설치 되었으면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선교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제자화 훈련 준비와 실질적인 사역의 장에서의 실험을 경험하는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survey와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일로 준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 딸이 장염을 앓아서 며칠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좋아졌지만 잘 먹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믿고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1.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네시아의 교회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2.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

쁨이 될 수 있도록.

3. 인도네시아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5. SAAT신학대학원의 채플 건립과 교회음악과 개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6. 서광종 이성일선교사와 딸 파란하늘이의 건강을 위해서기도해 두십시오



Merry Christmas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 (카자흐스탄)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

존경하는 위임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곳 카작에서 안부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이들이 목동들이었던 것처럼 이곳 카작인들도 전통적으로 양을 키우는 목동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추리를 장식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려는 카작인들이 청소년들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올 성탄에도 이 청소년들과 함께 주님의

의 나심을 마을과 도시에서 축하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서울교회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2. 이 땅 영혼들의 마음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3. 이 달에 비자를 순직하게 받게 하소서(올해 비자법이 바뀌어 어려움이 있음)
 4.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사랑의 집건축(고아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기숙사, 가정 교회, 어린이집)
 5. 이 땅을 주님 나라 삼으소서 (동서남북에서 주의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



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멘!



조남혜 선교사

슈보 보로딘~(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의 마지막을 보

내면서 12월에 성탄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먼저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랑하는 교회와 위임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망의 땅에서 성탄의 인사드립니다. 슈보 보로딘~

이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받으시고 복음으로 열고 계신 이곳 방글라데시가 주님의 땅이 되어가며 그리고 소망의 땅이

되어가고 있음을 같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진리에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는 이 땅의 85% 이상이 믿고 있는 모슬렘의 악한 영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어렵게 하지만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방글라데시를 향해서 또한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소망의 아이들과 함께 조남혜 선교사 드립니다.



여창범선교사(일본)

일본의 크리스마스
는 다른 나라와 같이 백
화점이나 도심거리

에 크리스마스트리와 이르미네션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화려하게 이르미네션으로 크리스마스를 장식하여 매년 TV방송에 소개되고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닌데 12월10일은 도오카마치(십일축제) 히가와신사의 행사와 연말 연시행사로 크리스마스보다 분주합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의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의 한 그루나무에 트리장식을 간단히 하고 조용히 성탄을

축하 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양노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가서 공연으로 위로하고 간단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유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공연을 준비하고 부모들을 초청하여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있으며 사이다마시 오미야 구민회관에서 초교과로 협력하여 크리스마스를 축하 하는 공연을 준비하여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천국 환송예배를 통하여 전도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그리스도의 탄생날인지도 모르는 일본사람들이 그저 분위기에 젖어 도쿄디즈니랜드나 유원지나 술집에서 연인들과 즐기면서 데이트 하는 날로 크리스마스이브 날에는

고요한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시끄럽고 죄악이 가득한 밤으로 물드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일본의 교회들도 조촐하게 교회성도들이 모여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교회가 잘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모든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좋은 실드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함에는 매일 크리스마스카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을 축하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우리 주님 나신 날

최학인 장로 (교육1국장)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가 되면 마음속으로 더욱 분주해지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바를 정리해야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탄 전야에는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오후 7시에 예배를 드리며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찬양예배부)의 새싹들이 찬양과 율동 등을 준비하여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감사하는 성탄 축하의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 날이기에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은 물론 온 성도들이 참석하여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림과 더불어 아직 말이 서툰 유아로부터 제법 늘름해진 유, 초등부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정성껏 준비한 2010년 성탄 축하 발표회를 즐겁게 보아주시고 아울러 이를 위해 수고한 교사들에 대한 격려 또한 당부 드립니다.



2010 한국 군선교의 밤이 12월16일(목) 오후5시에 군선교사역자 60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교회에서 열렸다.

2010년 12월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15일 수요일 1부 예배시 2010년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적월) 3째주 수요일 1,2부 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종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e공동체→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고은혜2 김광래 김세준 김정욱 김철호1 나수정1 박소혜 박정숙2 변영주 신정민1 신하근 안미애 윤덕훈 이수지 임희경 정정혜 조명순 최경숙3 최정은 허훈1 계 20명
- <입교자> 권순후 박재현3 윤이진 이강산 최소영1 최희주 허동권 하성권 한세희 계 9명
- <학습자> 김민경7 문광연 윤석준1 이상욱 황희진 계 5명
- <유아세례자>

Caleb Jin Joong Kim 권도영 김태형3 박동하 박준우4 배은준 심재호 안도윤 이수환 정소은 한예승 홍민화 홍준화 계 13명 총 47명



성탄 칸타타 초대외 글

김영준 장로(할렐루야 찬양대 부장)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신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악과 함께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인생들이기에 더 더욱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탄생과 죽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시려 성육신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첫 번째 빛이란 제목의 칸타타로 소망의 기쁨과 평강의 왕 그리고 사랑의 주와 큰 기쁨의 소식으로 묵어 찬양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노래로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감사 감격하여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엔 평화의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2일(수) 수사경찰서 성탄감사 예배에서 설교한다,
- 개입 : 1교구 방수희 집사(남지수 집사) 블레스(Bless, 디톡스센터, 독소제거) 은마상가 A 블록 225-1호, 전화 555-6045
- 승진 : 1교구 전이상 집사 삼성전자 전무이사
- 취임 : 3교구 김은석 집사 단국대학교 죽전 치과병원장

- 주간식당봉사 : 한나전도회(12,19) 리브가전도회(12,26)
- 금주의 식사 : 정영옥 권사(3교구) 생일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 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4. 연말 연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5.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